

# 죽음을 향해 걸어간 인류의 열정과 좌절의 기록

죽음의 역사 속 삶의 풍경

죽음의 역사는 죽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연대기다. 그 속엔 죽음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거리낌없이 시간의 멧음과 육신의 사라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 끝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죽음이 흔하던 시절에 죽음은 오히려 편안했고, 죽음이 희박해진 시대에 그것은 공포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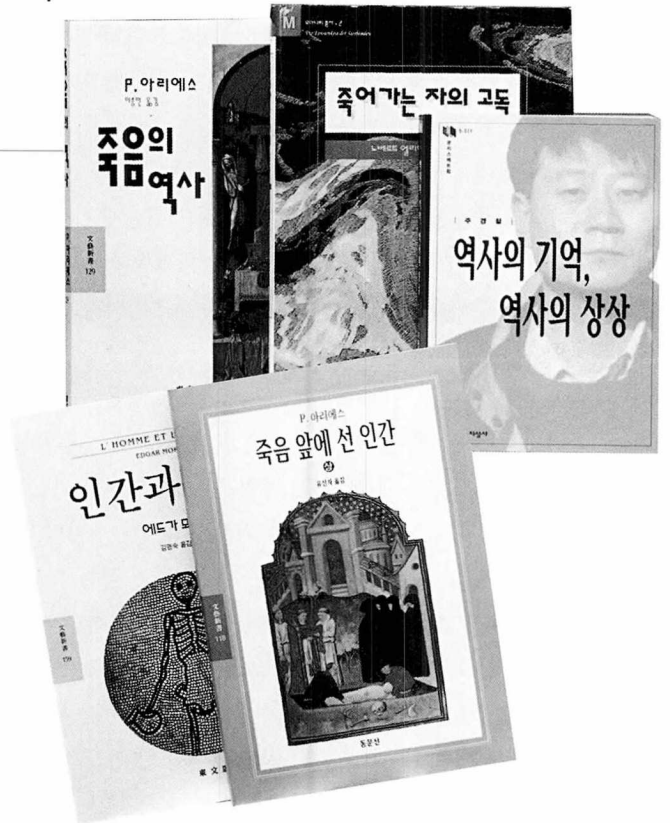
오늘날 공개석상에서 죽음을 대화의 주제로 꺼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몰상식한 인간이다. 요즘은 뜸해졌지만 불과 2~3년 전만 해도 “예수를 믿으세요. 안 그러면 죽어서 지옥갑니다”고 고래고래 떠들던 이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던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속으로 매몰찬 욕설을 내뱉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소란이나 무례함에 대한 불쾌감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가 스며있다. 바로 '죽음'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근본적인 태도다. 여기엔 “너무 공포스러워, 애써 모른 척 감췄는데, 기어이 건드려서 알게 됐다”고 하는, 일종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묻어 있다.

## 사유의 사각지대에 놓인 죽음이란 주제

죽음과 공포의 등식에 익숙해지고, 공포의 대상은 애초부터 무의식 속에 쫓겨 숨겨두는 것이 문명인들의 오랜 관행이다. 근대사회가 개막하고 죽음이란, '분명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또 알고 싶지도 않은'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홀로 누우면 슬그머니 고개를 치미는 것 또한 죽음이란 '악령'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내가 죽는다. 육체가 없다.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진다. 나는 다시 한번 죽는다. 나의 편지들, 나의 생각이 담긴 모든 책들마저 사라진다. 나는 없어진다.

서구의 경우 죽음을 집요하게 연구해온 몇몇 학자들이 있었다. 최초의 죽음연구가인 영국의 사회학자 제프리 고러, 평생 남의 무덤 묘비명을 훑어보며 살았던 프랑스의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 아흔네살까지 장수하며 《죽어가는 자의 고독》(김수정, 문학동네)



을 저술한 독일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왜 죽음에 집착했나? 해답은 어쩌면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거울쌍이기 때문이다.

##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한다고 믿은 중세인들

아리에스의 주저 《죽음 앞에 선 인간》(전2권)》(유선자), 《죽음의 역사》(이종민, 이상 동문선)는 죽음을 철저히 역사화시켰다. 난해한 추상명제를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와 그 행위들의 집적물을 통해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마운 책이다. 이 책은 중세부터 최근세까지 유럽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죽은 자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대처했는지, 죽음이란 모티프를 어떻게 예술 속에서 변형시켜왔는지 낱말이 알려준다. 아리에스의 통찰에 따르면, 역사상 죽음은 네 가지 정도의 형태로 변화했다. 길들여진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 너의 죽음으로, 그리고는 금기시된 죽음으로. 이 사이엔 물론 어느 정도의 인식론적 단절이 존재하고, 또 얼마만큼의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먼저 우리는 약간 놀라게 된다. 중세사람들은 죽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곁에 있는 것, 친숙한 것, 혹은 삶이 또 다른 형태로 연장되는 것으로 여겼다.

죽을 때가 임박하면 “이미 자란 말은 누구에게 물려주고, 망아지는 또 누구의 몫인지를 미리 정해 놓았다.” 그리고 그냥 통나무집을 바꾸듯이 쉽사리 자신을 위안하면서 죽어갔다. 삶의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앞당기려는 몸부림 또한 없었다. 대부분 “두손을 가슴에 모았으며, 이때 머리는 동쪽에다 뒀다.” 그에게는 몇가지 의무도 따랐다.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과오를 반성하며, 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의탁한다. 가족과 신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척들도 모두 자기 몫을 충분히 해냈다. 자녀들은 “의복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는가 하면, 뺨을 긁어대거나 열정적으로 시체에 입을 맞췄”으며 때론 실신해서 쓰러졌다.

기도와 지상에서의 죄과를 사면해주는 일은 사제들의 몫이었다. 시체는 어느 정도 어수선했이 가시면 운구되고 매장됐다. 매장지의 정확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고, 묘소에는 어떤 기념물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아리에는 중세의 이런 가족적이고 동시에 친숙하며 완화된 그리고 무관심하게 표현된 태도를 ‘길들여진 죽음’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광경들에는 ‘나’에 대한 자각이 빠져 있다. 너무 몰개성적이고 평화롭다. 이는 중세인들에게 “죽은 자들과의 공존”이라는 관념 혹은 “운명에 대한 집단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통해  
가능해진 ‘나의 죽음’**

그런데 중세 후반(12세기 초)에 접어들면, 인간과 죽음의 전통적인 관계에 개인적인 의미가 조금씩 부여되기 시작한다.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인식하는 태도도 생겨난다.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의식을 옥죄었다. 그런데 이 내세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동반한다. 이는 죽음의 의식에서 죽어가는 자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유언장’이 생겨났다. 이는 유언자와 신의 대리인인 교회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보증계약서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부자나 학자들의 죽음에서 잘 나타난다. 죽는 당사자는 아주 세밀하게 유언장을 작성했다. 우선 “빈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희사할 것”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현세에서 부를 축적한 것은 선량한 의도였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물론 대부분 교회에서 ‘약탈’ 했지만...). 그리고는 이웃집 아이를 나무랐던 사실, 평소 품었던 음란한 생각들 등 자신의 ‘전기’에서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한 장황한 변설이 이어졌다. 그것은 낭만주의적인 모노드라마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런 광경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해야 옳을까? 그보다는 오히려 현세적인 것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애착과 관련이 있다. 통사르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집과 과수원과 정원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중세 후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컸다. 이런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이, 결과론적으로는 현세적인 것들로 구성된 나에

대한 인식, 즉 “죽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전 인생을 단 하나의 축소판으로 다시 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나의 죽음’이 시작된 것이다.

**타자의 죽음 혹은  
죽음의 미학**

18세기에 오면 죽음은 더 극적인 것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이전과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죽음은 시와 회화 속으로 걸어들어와 예술의 주제가 됐다. 그 내용은 “씩어내리는 내장들의 악취에 대한 변태적 심취”거나 “에로틱한 환각”과 연결됐다. 죽음의 본능과 성 본능의 이같은 근접 현상은 당대를 풍미한 낭만주의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무덤’을 돌아다니며 예찬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의 육체를 수집하고 해부하는 ‘사체 취미’도 생겨났다. 이렇듯 죽음은 무차별적으로 대상화됐으며, 이런 대상화는 죽음을 ‘나’에게서 ‘너’, 즉 타인에게로 전이시켰다.

유언장의 작성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유언장의 역할은 “재산분배에 대한 합법적인 증서”로 축소됐다. 죽음의 의식은 ‘죽는 이의 독재적인 집도’에서 다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된 국면은 중세로의 회귀가 아닌, 가족개념의 대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죽어가는 이에 대한 중세인들의 태도가 조금은 의례적이었다면, 18세기의 가족들은 죽음 앞에서 ‘진정한 슬픔’에 빠졌고 때론 “히스테리할 정도로 보기 안쓰럽게” 격렬해졌다. 이런 태도는 19세기에 이르러 묘소에 대한 ‘애뜻한 치장’과 ‘지속적인 숭배’로 이어졌다. 묘지를 숭배하는 이런 풍습은 민족주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은 “애국심의 한 형태”로 변형됐다.

**죽음과 단절된  
현대인의 초상**

그리고 20세기를 맞아 죽음을 둘러싼 인간들의 태도에는 세번째 단절이 일어난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죽음의 장소는 ‘침실’에서 입원실의 ‘병상’으로 옮겨졌으며, 죽음의 원인은 “육체적 노쇠에 대한 자연스러운 깨달음”에서 “의사가 명명하는 병명”으로 바뀐다. 가족들은 죽어가는 이에게 더 이상 ‘병명’을 말해주지 않게 됐다. 의사들은 죽음의 장소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았고, 이 시점부터 죽음은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죽음의 풍부한 걸치레는 후퇴했고 죽음은 오늘날 “뭐라고 이름붙이지 못할 만한 것”이 돼버렸다. 우리는 생명보험을 신뢰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현대과학의 ‘불멸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 않는 한, 죽음은 여전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인간을 찾아오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순간이나마 그 주인공은 격렬한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은 채 생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 금기시된 죽음 이후 인간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강성민 기자